

청소년의 SNS 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관계의 조절효과검증

전지형¹, 김리원^{2*}

¹호서대학교 성인학습지원센터, ²호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Cyber-Bullying in Adolescents on SNS Addi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Friendship

Ji Hyoung Jun¹, Ri Won Kim^{2*}

¹Center for Adult Learning at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Hoseo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ling,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 중독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또래애착관계(또래의사소통, 또래신뢰, 또래소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고등학생 811명으로, 남학생 391명, 여학생 420명이었다. 분석결과 SNS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의사소통과 또래신뢰 수준이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래의사소통과 또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전 진단 프로그램의 대중화, 또래집단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진행, SNS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관계에서의 정서적·인지적 상황에 대한 사정 과정을 거쳐 폭력 가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등의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에 대한 실천적 개입 방안과 연구의 한계를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SNS addiction o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considering the adjustment effect of friendship on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involved 811 middle/high school students with a gender distribution of 391 males and 420 fema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er the level of SNS addiction, the higher the level of cyber-bully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friendship. The result shows that better peer communication and reliance lowers the impact of cyber-bullying from SNS addiction. Based on research results suggesting the popularization of proactive pre-diagnosis programs to solve SNS addiction,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and the limitations of research on SNS addiction and cyber-bullying in youth are suggested.

Keywords : Adolescents, SNS Addiction, Cyber-Bullying, School Friendship,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Ri-Won Kim(Hoseo Univ.)

email: riwon05@hoseo.edu

Received February 22, 2021

Accepted June 4, 2021

Revised April 1, 2021

Published June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동료 등과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및 확장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이다[1]. SNS는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관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듯 새로운 사회적 자본으로서 순기능을 가진 SNS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실패로 인해 과다사용하게 되면 대면관계에서의 대화단절, 수면 부족, 학업 및 업무 효율성의 저하, 사이버불링과 같이 인권침해적인 부정적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2]. 이와 같은 SNS 과다사용에 따른 증독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충동이나 욕구의 조절장애를 경험하는 행위증독의 하나로 볼 수 있다[3].

청소년의 SNS 증독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주관적 목표 대비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스마트폰과과의존위험군 중 청소년의 비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78.8%가 SNS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청소년들의 높은 SNS 사용률은 청소년들이 SNS 활동을 통해 개방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이지만, 역으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학업 성적 저하, 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 등의 사이버 불링과 같은 디지털을 이용한 폭력적 행위 가해 및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1].

청소년의 SNS증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지적 요인[6,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8-11],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교우관계 [1,12]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외로움이나 우울을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SNS증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5],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에 과몰입하지 않으며[13], 교우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SNS증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최근 스마트폰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채팅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14]. 사이버불링은 온라인 공간

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어폭력, 위협, 괴롭힘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사이버 왕따, 사이버 폭력 등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15]. 사이버불링은 학교 혹은 학원 등과 같은 한정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제약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16,17].

2018년 학교 선배와 친구들에게 SNS 상으로 욕설과 협박을 받고 투신하여 자살한 여고생 사건과 인천에서 SNS 상에서 일어나는 댓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18] 등은 사이버불링이 청소년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9%로 나타났고, 이 중 카카오톡 등의 온라인 채팅 서비스(45.6%)와 SNS 공간(35.3%)에서 가장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가해 행위가 SNS 공간 내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실태 내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관점에서 SNS 증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휴대전화, 컴퓨터 등 광범위한 인터넷 가용 공간에서 성장하고 생활 속에서 밀착되어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오프라인의 게임 및 놀이 공간으로 인식하며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 자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상적·논리적 능력의 발달 수준에 비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사회적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아중심적인 특성이 있다[22,24].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행위증독의 한 형태로서의 SNS 증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또래에게 폭력적인 해를 입히는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25]. 또한 절대적인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량과 사이버 불링 간의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 [26,27]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증독에 빠진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사이버 폭력 등의 비행에 노출되기 더 쉽기 때문에 사이버공간 내에서 폭력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청소년의 SNS증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SNS 증독을 경험한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이 사이버공간까지 연장되어 사이버불링과 악순화되며 상호연결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19-21], 비행친구 존재의 유무가 사이버불링 가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밝힌 선행연구 결과[22,23],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28]에 따라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SNS에 중독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SNS 중독 정도가 사이버불링 가해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위 간의 관계에 또래 간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SNS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SNS 과다사용으로 인해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및 피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사이버불링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의사소통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2.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신뢰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3.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소외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유한 중·고등학생

이 대상으로 임의할당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이루어졌고,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811명이 유효 표본으로 선정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2.2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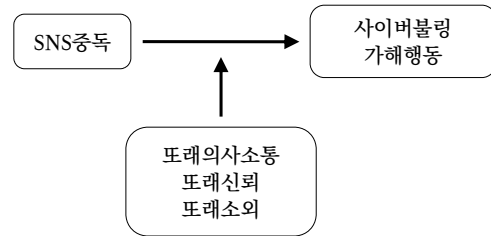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4 측정도구

2.4.1 SNS 중독

SNS중독 척도는 조성현, 서경현(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SNS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NS에 대한 집착 및 금단증상 10문항, 과잉소통과 몰입 7문항, 과도한 시간소비 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SNS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61로 나타났다.

2.4.2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사이버불링 가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은경(2012)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65로 나타났다.

2.4.3 또래애착

또래애착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에서 조사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항목은 또래 의사소통 3문항, 또래 신뢰 3문항, 또래 소외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가 낮아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또래 의사소통 .875, 또래 신뢰 .852, 또래 소외 .833으로 나타났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신뢰도 계수값을 구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한 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SNS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간의 영향력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8.2%, 여성이 51.8%로 여성이 많았고, 학년은 중3이 24.0%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월평균소득은 200~400만원이 36.3%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 여부는 64.7%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391	48.2
	female	420	51.8
grade	middle 1	15	1.8
	middle 2	112	13.8
	middle 3	195	24.0
	high 1	163	20.1
	high 2	164	20.2
	high 3	162	20.0
income	lower 200	99	12.2
	200 ~ 400	294	36.3
	400 ~ 600	227	28.0
	higher 600	191	23.6
dual-career parents	yes	525	64.7
	no	286	35.3
total		811	100.0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인 SNS중독, 사이버불링, 또래애착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2>와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SNS중독의 평균은 1.93으로 보통 정도였으며, 종속변수인 사이버불링의 평균은 1.58로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조절변수인 또래의사소통은 1.83, 또래신뢰는 1.86, 또래소

외는 2.69로 나타났다. 그리고 왜도가 2이하, 첨도가 4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기본 조건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prime variables

variables	mini/ maxi	Mean	SD	SE	K
SNS addiction	1.00/ 4.00	1.93	.696	.506 (.086)	-.183 (.171)
cyber-bullying	1.00/ 5.00	1.58	.838	1.724 (.086)	2.599 (.171)
peer communication	1.00/ 4.00	1.83	.665	.620 (.086)	.541 (.171)
peer reliance	1.00/ 4.00	1.86	.706	.634 (.086)	.288 (.171)
peer alienation	1.00/ 4.00	2.69	.851	-.241 (.086)	-.700 (.171)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for prime variables (n=811)

variables	1	2	3	4	5
1. SNS addiction	1				
2. cyber-bullying	.378**	1			
3. peer communication	.255**	.224**	1		
4. peer reliance	.231**	.202**	.860**	1	
5. peer alienation	-.178**	-.130**	-.082*	-.118**	1

3.3 SNS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3.3.1 SNS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대한 또래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검증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에 대한 또래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중독과 또래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SNS 중독의 계수값은 .391이고, 또래의사소통은 .201,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291로 본 연구의 <가설 1>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communication on the impact of SNS addiction on cyberbullying

model	β	SD	t	F change	R ²
C	.426	.096	4.424***	40.524	.21
SNS addiction(X)	.391	.039	10.105***		
peer communication(Z)	.201	.041	4.951***		
interactive term(XZ)	.291	.046	6.366***		

3.3.2 SNS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대한 또래신뢰의 조절효과 검증

SNS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또래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중독과 또래신뢰의 상호작용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SNS 중독의 계수값은 .402이고, 또래신뢰는 .169,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251로 본 연구의 <가설 2>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reliance on the impact of SNS addiction on cyberbullying

model	β	SD	t	F change	R ²
C	.463	.096	4.807***	32.853	.20
SNS addiction(X)	.402	.039	10.365***		
peer reliance(Z)	.169	.038	4.409***		
interactive term(XZ)	.251	.044	5.732***		

3.3.3 SNS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대한 또래소외의 조절효과 검증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에 대한 또래 소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중독과 또래소외의 상호작용이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SNS 중독의 계수값은 .441이고, 또래신뢰는 -.124,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076로 본 연구의 <가설 3>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alienation on the impact of SNS addiction on cyberbullying

model	β	SD	t	F change	R ²
C	1.067	.125	8.537***	3.445	.16
SNS addiction(X)	.441	.039	11.223 ***		
peer alienation(Z)	-.124	.032	-3.866 ***		
interactive term(XZ)	.076	.041	1.856 (0.06)		

4. 결론

본 연구는 SNS중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SNS중독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행동 빈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25]와 유사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애착변수의 하위항목인 또래의사소통과 또래 신뢰가 조절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NS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 중 또래 의사소통과 또래 신뢰가 높은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중독 수준이 높더라도 또래의사소통과 또래 신뢰가 낮을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사이버불링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결과[26]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안정과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또래간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정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5,27]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각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지를 얻고자 하는 또래집단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대한 태도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

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하위변수 중 또래소외는 조절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또래소외 척도는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를 묻는 문항이다. 이는 친구들과의 소원한 관계의 정도로서, 친구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행동이 수정 및 조절되는 영향력을 관찰할 수 있는 측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비행친구 존재 유무가 사이버불링 가해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2,23], 교우관계와 사이버불링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28], 또래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본 연구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친구관계가 소원하다는 것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위 정도를 조절하는 또래의 영향력 자체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닌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수준의 SNS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의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SNS 사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 수준을 향상시켜 SNS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개입이 사이버불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사전 진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SNS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SNS 중독 수준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의 빈도를 높이지만, 이는 또래관계에서의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 그 관계에서의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그 교우관계의 중요성이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동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또래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신뢰의 정도가 사이버불링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래집단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또래집단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SNS 중독은 청소년의 자살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불링을 악화시키는 문제 행

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이 SNS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절한 SNS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SNS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사정 뿐 아니라 정서적·인지적 상황에 대한 사정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만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연령층의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둘째, 또래애착관계 변수가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결과와 해석이 있는데, 이는 조사에 응답한 또래집단 구성원들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을 하는 청소년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또래집단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또래애착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관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관계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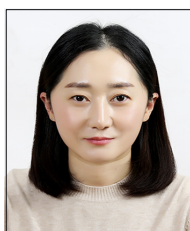
- [1] J. W. Kim & H. J. Yang.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on SNS Addicton-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chool Friendship-".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6, 101-122.
DOI:<http://dx.doi.org/10.17924/solc.2020.56.101>
- [2] R. W. Kwon. (2019).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SNS Addicton Tendency on Self-Esteem, Self-Control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3] J. H. Kim, J. M. Kim, Y. S. Kim & Y. J. Oh. (2017). "A Study on the Process of Adolescents' Overdependence: Based on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Research Association*, 24(6), 155-178.
DOI:<http://dx.doi.org/10.21509/KJYS.2017.06.24.6.155>
- [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2020 The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pp.33-46.

- [4] B. M. Jung, P. K. Nam, J. H. Lee, (2019), "2019 factual survey on Cyberbullyi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pp.13-16.
- [5] Clayton, R., Osborne, R., and Miller, B., 2013, "Loneliness, anxiousness, and substance use as predictors of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687-693.
DOI:<http://dx.doi.org/10.1016/j.chb.2012.12.002>
- [6] S. K. Kyoung & J. W. Kim. (2020). "A Study on Smart-Phone Addiction in teenager: focused on Comparison Smart-Phone Overdependence, game addiction, SNS addiction".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2, 179-200.
DOI:<http://dx.doi.org/10.17924/solc.2019.52.179>
- [7] M. J. Kim & H. S. Doh. (2017).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by Parents and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8(2), 133-148.
DOI:<https://doi.org/10.5723/kjcs.2017.38.2.133>
- [8] Y. Choi & K. H. Kim. (2019). "Effects of indirect expression of parental affection on youth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behavior".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6, 185-217.
DOI: <https://doi.org/10.24300/jkscw.2019.06.66.185>
- [9] J. W. Choi, J. H. Kim & H. J. Jang. (2020). "The influence of sensitivity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1(2), 155-177.
DOI: <http://dx.doi.org/10.14816/sky.2020.31.2.155>
- [10] Yu shuli, Rebecca Clemens, Yang Mongmei, Li Xiaoming, Bonita Stanton, Lynette Deveaux, Sonja Lnn, Lesley Cottrell, and Carole Harris, (2006), "YOUTH AND PARENTAL PERCEPTION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YOUTH DEPRESSION, AND YOUTH RISK BEHAVIO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4(10):1297-1310.
DOI: <http://dx.doi.org/10.2224/sbp.2006.34.10.1297>
- [11] E. A. Jang & H. H. Chung. (2019).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chool connectedness on the links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 313-340.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9.30.1.313>
- [12] Y. J. Kim & G. P. Cho.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martphone Overindulgence of High-School Students". *Society of Parent Education*, 8(1), 1-14.
- [13] Robert S. & Peter K. S.. (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 147-154.
DOI: <http://doi.org/10.1111/j.1467-9450.00611.x>
- [14] J. H. Yu & M. Y. Um.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ap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and child Welfare*, 69, 111-141.
DOI: <http://doi.org/10.24300/jkscw.2020.3.69.1.111>
- [15] C. H. Lee, N. M. Shin & E. B. Ha, (2014). "A Study on the Situa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Measures to Prevent I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p.3-4.
- [16] S. R. Shin. (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train and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3(1), 339-366.
- [17] Maeil Business News Korea. 2018.9.30. "Bullying through SNS: Serious problem of cyber bullying that led to high school girl death"
<https://mk.co.kr/news/society/view/2018/09/610022/>
- [18] Beran, T. & Li, Q.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 15-33.
- [19] G. J. Seong. (202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yber-Bullying of Youth".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7(1), 7-16.
DOI: <http://dx.doi.org/10.20496/cpew.2020.7.1.7>
- [20] Hinduja, S., & Patchin, J.. (2007).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DOI: http://doi.org/10.1300/J202v06n03_06
- [21] E. K. Kim. (2012).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Youth's Cyber Bullying".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 [22] S. I. Nam & N. H. Kweon. (2013).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 Offender's of Cyberbullying".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3), 23-43.
- [23] S. A. Kim, E. H. Bang & Y. S. Han. (2017). "Meta-analysis for Exploring Predictors of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Youth in South Korea".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5), 18-33.
- [24] R. W. Kim & J. H. Jun.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on SNS Addiction-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8, 171-189.
- [25] J. K. Lee. (2011). "A Study on Dispositional Mobile Phone Use Motives, Mobile Phone Addiction, and Mobile Phone Verbal Bullying of Adolescents : With a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2), 365-401.
- [26] E. K. Kim. (2012). "A Study of Effect of the Predictors on Youth's Cyber Bullying". Department of Education and Leadership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 [27] H. Choi & J. S. Baik. (2015). "A Study on the Variables of Cyber Bullying Exper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3(4), 195-208.

- [28] K. H. Suh & S. H. Cho.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1), 239-250.
- [29] J. Kwon & B. R. Kim. (2019).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yberbullying in Adolescen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2, 225-248.
DOI: <http://doi.org/10.17924/solc.2019.52.225>
- [30] K. N. Lee & M. H. Yeon. (2004), "Path Model for Adolescents` Internet-Related Delinquencies and Related Variab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5), 127-143.
- [31] K. E. Kim & H. M. Yoon. (2012). "Influences of Eco-systemic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Cyber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1), 213-238.

전 지 형(Ji-Hyoung Jun)

[정회원]



- 2011년 8월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여성학석사)
- 2019년 2월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성인학습지원센터 연구원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중독

김 리 원(Ri-Won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2월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정신건강, 청소년